

어휘접근적 문법교수를 위한 표현문형의 화행기능 분석*

-‘-어야 하다/되다’를 사례로-

강 현 화
(연세대학교)

<Abstract>

Kang Hyoun-Hwa. 2008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pattern expressions and communicative functions. *Korean Semantics*, 2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database which analyses a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ve functions and grammatical patterns for effective teaching of communicative functions. Based upon the case study about the ending forms including ‘-어야 하다/되다’, I conduct a corpus analysis to investigate semantic, syntac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their expressions. Using a spoken corpus, I especially attempt to examine a correlation between pattern expressions appeared in daily conversations and communicative functions. Based upon spoken data analysis, the given pattern expressions seem to have a primary meaning of obligation and are connected with a variety of communication strategies that emphasize or euphemize a speaker’s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rammar instruction can not be effectively carried out simply by teaching individual pattern expressions and artificial conversation depending on basic meaning.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meaning functions appeared in real language performance are identified. Second, this study distinguishes varied patterns of the given expressions from related patterns and suggests a list of pattern expressions that are combined with other grammatical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B00159)

forms and subsequently have different meaning functions. Therefore, a differential instruction of them is desired. Third, a contrastive study according to a learner’s language can be systematically undertaken because individual pattern expressions are carefully examined based upon corpus. This kind of study can contribute to teaching pattern expressions according to spoken oriented communicative functions.

핵심어: 표현문형(pattern expressions), 코퍼스(corpus), 의사소통 의미 기능(communication functions), 화행(speech act), 구어 코퍼스(spoken corpus), 문법 교수(grammar instruction),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

1. 연구 목적

최근 언어학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기능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능력 중심인 촘스키의 언어관을 비판하고 언어수행을 연구의 중심 과제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입말 연구가 언어 연구의 핵심적 과제로 떠오르게 되고 화용론, 담화 분석, 대화 분석 등의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언어 연구를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 된 것이다. 언어교육학계에서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숙달도의 개념이 주를 이루면서, 언어의 사용법이 아닌 실제 세계에서 필요한 기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과제 수행 중심의 교육, 문장이나 문단 단위가 아닌 담화·텍스트 차원의 교육,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언어 자료를 사용하는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는 이런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대화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해 의사소통 기능과 문형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그 사례 연구로 ‘-어야 하다/되다’를 포함하는 종결어미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표현의 의미 및 형태·통사적, 화용적 특성을 코퍼스 분석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즉, 한 표현문형¹⁾의 구어 용례의

1) ‘표현문형’이란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 흔히 ‘패턴’으로 주어지는 문법 교수의 단위를 지

사용 양상을 살피고 이들의 변별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 표현문형이 실제 대화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문어 중심, 형태 중심의 문형 교수를 넘어서서 구어 중심, 의사소통의 기능에 따른 문형 교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2. 선행 연구

2.1 기능 문법에 대한 연구

어휘와 문법이 연계된 어휘적 접근(Lexical Approach)에 이어 언어교육에 있어 문법과 화행이 연계되고 있다. Graham Lock(1996)에서는 문법을 규칙의 집합으로 보고 문법 구조의 형태에 관심을 두었던 전통적인 형식(formal) 문법을 비판하고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법은 분석을 위한 추상적 문법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화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문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Graham Lock(1996)과 Cobuild(1990)는 언어 학습자를 위한 기능 문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²⁾ 기능 문법에서의 문법이란 언어 사용자들이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체계인 언어의 구조를 분석해 놓은 것을 의미하며, 문법 구조의 형태가 아닌 기능과 기능의 구성 성분, 맥락 속에서의 기능적 의미를 주된 관심사로 한다. 기능 문법은 문법이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고 의미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학습자와 교사에게 그 언어에 대해 유용한 것을 말해 줄 수 있는 문법이라는 것이다.³⁾

칭한다. 보통 빈칸(slot)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빈칸이 대체되며 담화상에서 특정 기능을 나타내는 생산적이고 관습적 어휘구'를 의미한다.

2) Graham Lock(1996)의 Functional Grammar는 제2 언어 교사를 위한 문법서의 역할을 하며, Collins Cobuild(1990)의 English Grammar는 제2 언어 학습자와 교사, 자료 개발자 등을 위한 문법서이다. 기능 문법의 한국어교육에의 적용에 대한 논의는 한송화(2006)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3) Graham Lock(1996)에 의하면 기능 문법에서의 문법적 기능(grammatical function)은

본고가 의미하는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 정의하기 위해 우선 일정한 문법 구조나 형태가 일정한 기능에 고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느냐 하는 점을 논의해 보자. 기능문법자들은 일정한 문법 구조 혹은 형태가 일정한 기능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견해를 전제한다. 하지만 Cobuild(1990)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일정한 구조 및 형태가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가지기도 하고, 또 다른 구조가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형태와 기능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본고가 의미하는 의사소통 기능이란 '방향 묻기, 길 찾기 등'의 상황적 의사소통 기능이 아니라, '명령, 거절, 의지' 등과 같이 화자의 발화 의도와 연계된 화행(speech act)로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화행의 기능은 실제 언어수행에서는 특정한 문형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본다. 다만 한 형태가 어떤 의사소통 기능을 나타낸다고 기술하려면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연구에서 문법항목의 교수가 형태, 의미와 더불어 의사소통의 기능적 정보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종은(1998), 김재옥(2003), 박영순(2001), 이효정(2003), 한송화(2003), 강현화(2007-) 등이 주된 논의들이다. 박영순(2001)은 종래의 서법 분류를 비판하고 화자가 발화한 문장이 청자에게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가 하는 점에서 문장을 기능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한송화(2003)는 명령과 관계된 기능의 언어형식을 범주화하고 효율적인 학습 방안을 연구한 바 있으며, 이효정(2003)은 한국어교육에서 양태를 나타내는 많은 덩어리 문형표현들의 의미와 문법적 특성을 정리한 바 있다. 한송화(2006)한국어 문법에서의 문법 범주를 기능 문법에 근거하여 범주화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한 바 있다. 김서형(2007)에서는 희망표현의 목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구어 말뭉치 검색을 통해서 이들 형태의 통사적, 화용적 차이를 기술하고 있다. 강현화(2007-) 역시 한국어교육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분류하고 이중 지시적 화행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문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본 논문은 위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들

기능적 언어 교수(functional language teaching)에서의 기능(function)과는 구분된다고 보았다.

과 맥을 함께 하고 있으며, 코퍼스 자료의 분석을 통해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문형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2.2 ‘-어야 하/되다’에 대한 연구

이 절에서는 ‘-어야 하/되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개별 문형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어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어야 하/되다’의 기본 의미를 ‘당위나 의무’로 파악했으며, ‘당위’의 보조동사로 본 것은 최현배(1937: 386)부터이다. 최현배에서는 보조용언을 20개 범주로 가르고 있는데, 그중에 ‘당위’의 보조동사로 ‘-어야 하-’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선웅(1995)은 보조용언이 양태성을 갖는다고 보고, 평가 양태, 의무 양태, 인식 양태로 나눈 후, ‘-어야 하-’구성을 의무 양태로 분류하고 있다. 이필영(2004)에서는 ‘-어야 하-/되-’구문을 [-인지적] 양태로 분류하고, ‘어떤 명제 내용에 대한 당위성 판단’으로 보았다. 안주호(2005) 역시 ‘-어야 하-/되-’구문의 의미 기능을 의무 양태의 관점에서 정도성을 갖대로 설명한다. ‘-어야 되-/하-’구성은 화자 또는 사회가 청자나 문장의 주어에게 명제의 내용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필연성]을 가진다고 보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명제의 내용이 실행될 것을 요구하는 화자의 권위를 나타내므로 [강제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한편 당위나 의무 외의 의미 기능에 대한 논의도 있다. 앞서 살펴본 안주호(2005)에서는 다른 의미 기능도 제시하는데, 아래의 (1ㄱ)처럼 주어와 화자가 동일하면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거나, 어미 ‘-는데’와 결합하여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고(1ㄴ), 선후행 용언에 과거시제 형태소 ‘-었-’을 써서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아쉬움’을 나타내기도(1ㄷ) 한다고 기술하면서, ‘-어야 하-/되-’구성의 하위 의미로는 [의무, 상황, 당위, 바람, 의지, 후회] 등을 구분하였다.⁴⁾

4) 안주호(2005) 14쪽 예문 재인용

- (1) ㄱ.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아야 (하)겠소.
 ㄴ. 내일은 비가 그쳐야 되는데.
 ㄷ. 어제 창문을 닫았어야 했다.

그 밖에도 ‘당위’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 기능을 인정한 연구가 있다. 임철성(1996)에서는 ‘-어야 되다’가 부정을 나타낼 때, (2ㄱ)은 (2ㄴ)과 같은 양보의 뜻으로 해석됨을 지적하고 있다.

- (2) ㄱ. 나에게 사정해 보아야 안 된다.
 ㄴ. 나에게 사정해 보더라도 안 된다.

코퍼스 자료가 언어수행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때, 실제 언어수행에서 나타난 ‘-어 하다/되다’의 의사소통 기능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3.1 코퍼스 연구의 효용성

현재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문법은 ‘시제, 부정, 존대 등’과 같이 문법범주에 따른 문법 지식만의 교육이 아니라, ‘-는데도 불구하고, -기 때문에, -는 것 같다, -ㄴ 리가 없다, -ㄴ 수 있다’ 등과 같이 화자의 의도와 연계된 표현문형 형태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는 내국인 대상의 문법 교수와 가장 확연히 구분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표현문형 중심의 문법 교수는 외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발화의 이해와 산출에 큰 도움을 주어 왔다. 하지만 실제 교수의 내용이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교재를 살펴보면 문형과 연습 문제만을 제시했을 뿐, 해당 문형에 대한 설명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진 바가 많았고, 실제 교사가 교실에서 개별 문형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우선, 개별 문형의 형태에 초점을 두고 제약형과 간단한 의미만을 제시한 뒤, 문형 연습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연습은 고립된 구나 문장 형태의 연습으로 이루어져 담화로 이루어지는 언어 사용의 실제 모습과 연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한 개별 문형이 가지는 다양한 담화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제시와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효율적인 문법 교수를 위해서는 우선 개별 문형의 의미, 형태·통사, 담화상의 특성이 면밀하게 연구되어야 하며 기초 자료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간의 연구에서 개별 문형에 대한 통사적·의미적 기능 외에 화행 기능에 대한 소규모 연구들도 진행되어 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개별 화행에 대한 연구들은 전체적인 화행의 틀 속에서 총괄적으로 분석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 화행 기능의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다.⁵⁾ 또한 개별 화행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의 연구에서 개별 화행과 문형과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는 효율적인 문법 교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문법 교수를 위해 화행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가? 또한 연구 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본고는 구어 담화에서의 효과적인 문형 교수를 위해 특정 문형과 화행 간의 상관관계를 코퍼스 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정 문형이 어떠한 담화 기능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선행 연구나 교재나 사전류의 문형 자료의 분석에 기댄다. 그 다음으로 개별 문형이 가지는 의사소통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흔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원한다. 첫째, 연구자의 직관을 사용하는 주관적인 방법, 둘째 담화완성형 설

5) 제안, 제의, 부탁, 명령 등의 세부 화행은 다루어졌으나, 큰 틀에서의 제의와 제안, 부탁과 명령과의 경계 구분이나 변별성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채 세부 화행만을 논의하다 보니, 논의의 중복이나 변별의 실패가 일어났다고 본다. 필자의 견지로는 화행 분류에 대한 논의는 선행연구를 분석해서 화행의 틀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개별 문형의 화행의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이를 역으로 정리한 귀납적인 연구로서 화행의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문지(DCT)를 사용하는 방법, 셋째 코퍼스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간의 연구에서 첫째와 둘째 방법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들 연구에는 주관성과 수적 한계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연구자의 직관에 의한 방법이나 주관적 설계에 의한 설문조사법은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했으며, 설문조사법 역시 조사 대상의 수적 한계로 인해 신뢰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말뭉치 연구도 몇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말뭉치의 예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관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말뭉치에 출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말뭉치의 불균형성으로 인해 특정 기능이 두드러짐으로 해서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충분한 규모의 말뭉치의 확보와 말뭉치의 균형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코퍼스를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연구방법은 기존의 담화완성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역으로 보다 효율적인 담화설문 문항 작성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 연구 방법론에 대한 상보적인 연구로서 귀납적 실제 자료인 코퍼스를 바탕으로 하여 표현문형의 실제적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3.2 연구 방법

3.2.1 선행 연구 및 사전을 통한 분석

2절에서 살핀 국어학 쪽에서의 내용 연구 외에 아래의 목록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문법 항목 중 해당 문형에 대한 설명을 분석해 보자.

이병규 외(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에서 추출한 문형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에서의 표현문형 목록

서상규 외(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의 표현문형 목록

백봉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사전』에서의 표현문형 목록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에서의 표현문형 목록

우선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어야 하다’를 문형으로 다루어 교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전에서의 분석을 살펴보면 ‘-어야 하다/되다’를 ‘의무’나 ‘당위’의 의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희자·이종희(2001)에서도 ‘-아야’, ‘-아야겠-’, ‘-아야만’, ‘-아야 하겠다’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백봉자(2005) 역시 ‘-어/아/여야 하다’를 독립 문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아야 하다/되다’ 모두를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이거나 의무적인 행위 및 꼭 필요한 상태나 조건임을 나타낸다’고 기술하고 ‘-아야 하다’는 문어에, ‘-아야 되다’는 주로 구어에 사용된다고 적고 있다. 서상규(2004)에서는 ‘되다1’, ‘하다2’의 하위 표제어로 두고 (1)마땅히 그래야 함을 나타낸다. (2)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고 기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어 교재에서는 대부분 문형의 하나로 다루어 이를 교수하고 있으나, 한국어 학습자 사전에서는 ‘-어야’의 하위 부류로 보아 따로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모두 ‘당위, 어쩔 수 없음’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용 문형 사전의 대부분에서도 이를 ‘당위’의 의미를 가진 독립 항목으로 보며, 결합형에 따라 추측이나 의도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2 대상 말뭉치의 범위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말뭉치는 구어 말뭉치와 문어 말뭉치의 두 부류이다. 문어 말뭉치는 세종말뭉치를 사용했으며, 구어 말뭉치는 세종말뭉치 외에 필자가 추가로 보충하였다. 세종말뭉치는 대규모 자료이므로 균형성을 담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만 구어 말뭉치의 경우에는 세종말뭉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⁶⁾ 세종말뭉치 중의 구어 말뭉치는 양도 적는데다가 실제 검색 결과 목표 문형의 사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어 말뭉치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였다. 구어 말뭉치는 다

6) 세종 구어 말뭉치는 총 30만 어절로 대화(공적 37%-방송/비방송, 사적 32%-일상대화/전화대화)와 독백(공적 29%-방송/비방송, 사적 2%-동화 영화 드라마 경험담)로 구성되어 있다.

양한 하위 부류로 나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류들은 세종말뭉치에 기대고 드라마나 영화 대본 자료만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드라마나 영화 대본은 흔히 준구어 말뭉치로 불리는데, 이는 일상 대화를 전제로 쓰여졌지만 작가에 의한 비실제적인 자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가 준구어 말뭉치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 대화 말뭉치는 전사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략과 도치와 같은 구어적 특성이 두드러지므로 연구 대상이 되는 문형을 찾아내는 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준구어 자료를 통해 대화의 전형적(typical)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작가는 대사의 작성에 있어 실제 대화의 형태로 기술하면서도 독자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독창성을 발휘하기는 어렵고, 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전형적 문장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제 대화보다 표현의 전형성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대본의 특성상 대사에 앞서 괄호나 지문 등을 통해 등장인물의 발화의도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발화와 발화자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본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상황이나 장면이 반영되어 있어 대인적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다양한 기능을 살피는 데에 적절하다.

하지만 구어 대화 말뭉치에 비해 실제성의 정도가 떨어지고 여전히 작가 작가의 개인 방언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세종말뭉치의 일반 구어 말뭉치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가로 구성한 구어 말뭉치의 분량은 드라마 52편, 영화 56편이다. 실제 드라마는 52편이지만 한 편의 드라마가 일일 드라마, 미니 시리즈, 주말 드라마 등 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물이기 때문에 총 52편의 드라마 1,228회분의 대본이다.⁷⁾ 이는 약 7,013,918 어절이다.

[드라마 대본] 반올림, 반올림2탄, 반올림3탄, 학교2, 학교3, 카이스트, 군세어라 금순아, 고맙습니다, 메리대구공방진, 아들과 딸, 연애시대, 커피프린스 1호점, 환상의 커플, 귀여운 여인, 궁, 그린로즈, 네 멋대로해라,

7) 현대 구어 양상에 주목하기 위해 사극이나 시대물은 배제하였다.

마왕, 불꽃, 황금사과, 하얀거탑, 케세라세라, 최강 올업마, 찢의 전쟁, 오 필승 봉순영, 건빵선생과 별사탕, 가을동화, 겨울연가, 삼순이, 올인, 파리의 연인, 이 죽일 놈의 사랑, 달자의 봄, 장밋빛 인생, 여우야 뭐하니, 연인, 피아노, 풀하우스, 호텔리어, 불새, 옥탑방 고양이, 첫사랑, 해바라기, 햇빛 속으로, 눈사람, 토마토, 네 자매 이야기, 마지막 전쟁, 비단꽃 향무, 변호사들, 이브의 모든 것, 비밀

[영화 대본] 하루, 미녀는 괴로워, 백만장자의 첫사랑, 나의 결혼 원정기, 극락도 살인사건, 그 해 여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각설타, 사랑 따윈 필요 없어, 그녀를 믿지 마세요, 청춘만화, 괴물, 그놈은 멋있었다, 거룩한 계보, 질투는 나의 힘, 댄서의 순정, 폰, 신부수업, 8월의 크리스마스, 공동경비구역 JSA, 광식이 동생 광태, 국화꽃향기,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동갑내기 과외하기, 말아톤, 선물, 선생 김봉두, 쉬리

가능한 주제가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주제의 드라마를 선정했고, 등장인물도 세대별로 10대~60대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였으며, 직업 및 지위를 고려하고자 했다. 시대별로 80년대~현재까지 방영했던 드라마, 영화를 선정하였다. 또한 특정한 의사소통의 기능은 발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로 삼은 모든 준구어 자료에 대해 출연하는 인물의 관계 정보를 조사하였다.⁸⁾ 구어 말뭉치는 대화별로 검색되므로, 등장인물의 태도에 의한 화청자 간의 관계 분석은 해당 발화에서 상호작용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화청자의 남녀 성별, 나이, 화청자 간의 상호관계(공적, 사적, 친근도), 방언적 특성(지역이나 사회적 계층 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⁹⁾

8)

고맙습니다			
민기서	29세 남, 외과 레지던트 4년차	서은희	20대 여, 석현 약혼녀, 국립관현악단 단원
이영신	27세 여, 봄을 기다리는 밀감닷컴 사장,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와 에이즈에 걸린 딸이 있음	강국자	50대 여, 석현 어머니

9) 등장인물이 세월의 변천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거나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 내용

이 절에서는 코퍼스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문형의 구체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 문형이 다양한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개별 문형에 대한 분석의 범위는 아래의 항목을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의 결과는 모두 코퍼스에 근거한 것이다.

- ① 빈도 정보 및 말뭉치 사용 양상
- ② 의미적 특성(기본/주변)
- ③ 형태·통사적 특성
- ④ 어휘적 특성
- ⑤ 화용적 특성

4.1 빈도 정보 및 말뭉치의 사용 양상

해당 문형의 빈도 정보 및 말뭉치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자. 문어 말뭉치는 세종말뭉치의 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어 말뭉치는 세종말뭉치의 구어 자료 및 필자가 구축한 구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어야 하다’	‘-어야 되다’	빈도합
문어 말뭉치	6,776(90.1%)	745(9.9%)	7,521(100%)
구어 말뭉치	1,627(40.5%)	2,395(59.5%)	4,022(100%)

분석 결과 특이한 것은 ‘-어야 하다’는 문어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됨에 반하여, 구어의 경우에는 ‘-어야 되다’가 약 60%를 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일상 대화에서는 ‘당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야 되다’를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각 말뭉치에서 사용된 의미의 분석도 흥미로웠다. 문어 말뭉

치의 의미는 대부분이 ‘당위’, ‘의무’를 나타내었는데, 그 예문은 아래와 같다.¹⁰⁾

- # 대상이나 표지의 작용은 그것이 누리는 지역(무대) 혹은 그 지역주민(관객)에게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 # 민주화와 통일은 함수관계에 있으므로 모든 문학·예술·학문이 이 민족적 과제를 향해 뭉쳐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반동인 것입니다.
- # 아동문학은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문학이다.
- # 시는 이렇게, 이런 쪽에서만 써야 하며, 이런 것들이 시의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구어 말뭉치의 분석에서는 단순한 당위 표현은 2개의 예문으로 제한되었고 청자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위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되, 그 위에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어 코퍼스의 특징에 대해서는 화용적 특성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겠다.

4.2 의미적 특성

사전에서 한 단어의 의미는 기본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먹다’는 그 기본적 의미가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먹다, 뇌물을 먹다, 더위를 먹다, 기름을 먹다’ 등은 주변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3)과 같은 주변적 의미는 사전에 따라 하나의 의미 항목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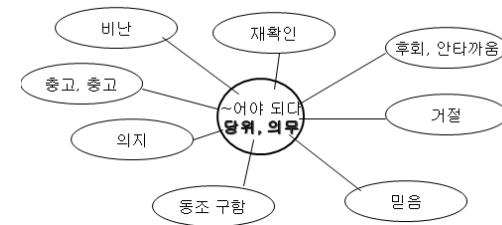
- (3) ㄱ. 남편은 내 말에 한 방 먹고 이내 나가떨어졌다.

10) 약 7000여개의 용례 전체에 대해 의미 태깅을 해서 빈도를 구하지는 않았으나, 거의 대부분이 의무나 당위의 용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구어를 전제로 한 연설이나 구체적인 독자를 전제하는 경우에는 ‘제안, 충고’와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구어적 문어와 문어적 구어와의 경계 측면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 ㄴ. 이번 경기에서 1등을 먹었어요.

사전마다 개별 의미 항목의 지위 부여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해당 의미 항목이 얼마나 널리 많이 사용되어 그 지위를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개별 단어의 의미 항목과 같이 개별 문형의 의미 항목에도 같은 조건이 고려된다. 기존의 사전 분석에 의하면 ‘-어야 하다’의 의미는 ‘당위 혹은 의무’를 기본 의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야 하다’가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에서 드러나는 의미들 중에서 무엇을 어디까지를 의미 항목으로 선정해야 할까? 해당 의미의 관용성 문제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의미 항목 선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발화 의미 판정에 대해 잠시 논의해 보자. 실제 자료를 분석할 때, 발화 시의 화자의 의도를 어떻게 판정해야 할까는 쉽지 않다. C. R. Carr(1980), Kent Bach(1981) 등은 발화자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청자의 해석이나 의도적인 발화자의 왜곡(말장난, 혹은 숨김) 전략에 의한 ‘화용적 딜레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문법적 적법성의 판정과는 달리, 실제 담화맥락에서는 발화자나 청자의 의도에 근거한 발화 전략이 작용하므로 화행 기능의 판정은 매우 어렵다. 본고에서는 발화 의도와 관련한 화행 기능을 판정함에 있어, 청자의 반응이나 화자의 수정(혹은 인정) 여부를 근거로 하겠다. 즉, 청자의 반응(부탁에 대한 수락 혹은 거절)에 따라 선행 발화를 ‘부탁’으로 판정하며, 만약 청자의 반응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화자의 수정이 이루어지면 화자의 의도가 명확해지므로 그것(수정된

것)을 발화 의도로 판정할 것이다. 화자가 청자의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최초의 화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처음의 것)에 준거해 해당 발화를 판정한다. 이제는 문형의 의미 항목 선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으(시)겠어요?’의 쓰임을 살펴보자.

(4) ㄱ. 가: 지금 가시겠어요?

나: 예, 지금 가려고요.

ㄴ. 가: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나: 그러지요. (창문을 연다)

(5) ㄱ. 가: 이걸 김 선생한테 부탁해 볼까요?

나: 김 선생이 이런 걸 해 주시겠어요? (해 줄 리가 없다)

ㄴ. 가(교수): 이 것 좀 복사해 주겠어요? (‘명령’의 의미로)

나(조교): 예, 그러지요.

국어학의 논의에서는 (4ㄱ)의 으(시)겠어요?’를 의문문으로 본다. 대화라는 문맥을 제외한 채 고립된 문장으로 본다면 이때의 의미는 청자의 의향을 묻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기본적 의미(문자적 의미)로 정의한다면, 기본 의미란 개별 문형이 문맥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4ㄴ)을 보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청자에게 ‘요청, 제안’ 등의 언표내적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즉, 열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행동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어 화자라면 아주 자연스러우며 실제 대화상의 빈도에서는 (4ㄱ)의 의미보다 (4ㄴ)의 의미가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¹¹⁾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퍼스 상에서의 고빈도성은 독립된 의미 항목인 주변적 의미(의사소통 전략적 의미)로 선정하는 데에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

11) 이런 이유로 국어학의 서법 분류에서 ‘-으(시)겠어요’를 청유법에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때는 반드시 의문문의 형태로만 제약되며, 서술문의 형태로 사용될 때는 이러한 ‘부탁’의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추측, 추정)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5ㄱ)의 의미는 독립적 의미 항목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5ㄴ) 역시 화자와 청자 간의 특정한 관계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역시 독립된 의미 항목으로 볼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들을 (4)의 의미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본다. 즉, 주변적 의미(전략적 의미)는 대화상에서 공인된 관습적 의미로 실제 대화상에서 고빈도로 출현하는 의미로 보지만, 개별 상황적 의미(혹은 문맥적 의미)는 다분히 문맥 의존적이어서 해당 담화 상황에서만 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저빈도로 출현하는 의미 항목으로 보고자 한다. 한편 화자의 발화 의미를 청자가 헤아릴 수 없거나 지극히 개인적 성향으로 특정 발화의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면 이들은 고정되지 않은 의미로 보아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위에서 지적한 기본적 의미는 국어학에서 중점을 두었던 의미임에 반해 전략적 의미, 상황적 의미들은 언어교육의 측면에서 정리되어야 할 의미라고 보인다. 하지만 전략적 의미, 상황적 의미의 구별은 쉽지 않으며 단순히 코퍼스의 빈도에만 기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 항목의 독립에 대한 관용성의 평가는 코퍼스 자료 분석 결과로 도출되는 의미에 대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담화완성형 설문지(DCT)를 사용하여 그 객관적 기준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4.3 형태·통사적 특성

한 종결형의 표현문형은 용언의 활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군’은 ‘-는군/-군, -더군, -겠군, -었군’과 같은 시상 결합형과 ‘-는군요/-군요, -더군요, -었군요, -겠군요’와 같은 비격식 높임말, ‘-었더군(요), -겠더군(요), -었겠더군(요)’과 같은 결합형 문형들이 관련된다. 이들은 문법적 특성(시상이나 존대)만 다를 뿐 의사소통의 기능이 동일한 경우(6ㄱ, 6ㄴ)도 있고, 화자의 인식적 차이를 담고 있는 경우(6ㄷ)도 있다.

(6) ㄱ. 비가 오는군/왔군/오겠군.

ㄴ. 비가 오는군요/왔군요/오겠군요.

ㄷ. 비가 오더군요/왔더군요/오겠더군요/왔겠더군요.

개별 문형은 활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본고에서는 이중 의미 기능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변이 문형’으로 의사소통 의미 기능이 달라지는 것을 ‘관련 문형’의 용어로 잠정적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즉, 변이 문형이란 ‘-어야 하다’에 선어말어미가 결합된 것으로 기본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흔히 개별 문형에 시상의 선어말어미나 조사, 어말어미가 결합된 경우는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시제’의 결합이 언제나 기본 의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본고가 대상으로 삼은 ‘-어야 하다’가 ‘시제’가 결합되었을 때 새로운 의미 기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 (7) ㄱ. 오늘 학교에 가야 해요.
 ㄴ. 오늘 학교에 갔어야 해요./했어요.
 ㄷ. 내일 학교에 가야 하겠어요./가야겠어요.

위의 (7ㄴ)과 같이 과거 시제가 결합되면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의 의미 기능을 가지게 되며, (7ㄷ)과 같이 ‘-겠-’과 결합되면 ‘미래의 일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문형마다 시제 결합에 따른 의미 기능의 차이는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었어야 하(했)다’는 ‘후회’를 나타내며, ‘-어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들은 본고의 용어로는 ‘관련 문형’으로 구분하여 ‘-어야 하다’와 연관하지 않고 독립된 의사소통 의미 기능을 가지는 항목으로, 따로 교수할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어야 하다’가 부정문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선행 용언은 동사나 형용사 모두 올 수 있으며 특별한 제약이 없다. 부정문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위성’에 대한 부정의 경우에는 (8ㄴ)과 같이 표현되고, 가는 ‘행위’에 대한 부정의 경우에는 (8ㄷ)과 같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8) ㄱ. 오늘 학교에 가야(만) 해요.
 ㄴ.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요.
 ㄷ. 오늘 학교에 안 가야 해요.

‘-어야 하다’를 문형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당위’라는 하나의 의미 단위로 가르치게 되므로 (8ㄴ)을 부정문으로 제시하는 게 옳다. 또한 (8ㄱ)과 같이 조사 ‘만’이 결합되면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9ㄴ)은 불가능하다.

- (9) ㄱ. 내게 말해야 한다./내게 말해야 된다.
 ㄴ. *내게 말해야 안 한다/하지 않는다.

또한 ‘-아야 되다’의 어휘적 피동 의미가 느껴지지만, 실제 의미에서는 ‘(화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드러내게 되어, 피동성의 의미가 아닌 당위성이 강조된다.

- (10) ㄱ. 오늘은 학교에 가야 해요. (꼭 듣고 싶은 강의가 있어요)
 ㄴ. 오늘은 학교에 가야 돼요. (시험이 있어요)

4.4 어휘적 특성

‘-아야 하다/되다’ 문장은 ‘반드시, 꼭, 항상’ 등의 부사와 주로 어울린다. 하지만 특정 부사와 결합해도 의미를 강조할 뿐 의미 기능이 달라지지 않는다.

- (11) ㄱ. 오늘은 반드시/기필코/꼭 학교에 가야 해요.
 ㄴ. 밥을 먹고 나서는 항상/언제나 약을 먹어야 해요.

4.5 화용적 특성

‘-어야 하다/되다’의 담화 상에서의 의미 기능은 구어 말뭉치에서 아주 두드러진다. 구어는 문어와는 달리 청자와의 대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의 체면을 손상하거나 부담을 주는 발화를 할 때에는 이를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후회, 의지’ 등과 같이 화자 자신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칭찬’ 표현은 특별한 전략을 필요로 하지 않지

만, ‘거절, 충고, 부탁, 제안’ 등과 같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직설적(문자적) 표현보다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구어 코퍼스의 분석 결과 ‘당위’의 표현으로 인식되던 ‘-어야 하다/되다’는 이러한 화자의 전략을 돕는 표현으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서술문에서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자. 의사소통 기능의 관점은 앞선 절에서 제시한 관정 기능을 사용하였다.

- (1) 당위, 필연: 독백이나 자신에 대한 설명에 주로 나타난다.¹²⁾
 # 미스진: 지금 가야 돼?
 선수: (얼른 외면하며) 연속이가 기다려서 꼭 가야 되지만 뭐 좀 늦었으니까.
 #반수: 어디서 돈이나 쏟아졌으면...
 정태: 이빨 다 망가져 다시 해야 되는데 돈 아까워 못하고 살아요.
- (2) 후회, 아쉬움, 안타까움: 과거의 사태에 대해 기술할 때 주로 쓰인다.
 # 독고진: (조르듯/동동) 이번엔 정말 이겼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당사자랑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제가 괜한 짓을 했네요.
 # 후남모: 내가 니들 믿고 귀남이를 서울에 올려 보낸 거부터가 잘못됐지. 그제 내가 데리고 이것저것 보살뻐어야 하는 건데 내 죄가 크다.
 후남: 그런 거 아니에요.
- (3) 불안: 주로 종결형의 ‘-는데’와 결합하며 말끝을 흐린다.
 # 어떡하나, 협조 안하면 당장 오천만원 몰어줘야 되는데...
 # 후남모: 예구, 귀남아, 밥 될라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 후남부: 이려고 있을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하는 것인데... 머리를...
 # 후남: 석호선 공부해 봐서 알 거 아니에요?
 석호: 공부. 그게 몇 번이 고비가 있데요?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하는 건데...
- (4) 부탁: 화청자 간의 관계에 따라 부탁으로 쓰이기도 한다.
 # 채영: 너 이교수님 랩에 자원해 들어갔다며?
 민재: 그래서? (회의노트를 펼치고 재명을 보며) 우선 IC 칩을 사와야 하는데...
 재명: 나 내일 서울 가. 가서 사올게.
- (5) 거절: 제안, 부탁에 대해 거절로 ‘어쩔 수 없음’을 나타낸다.
 # 미현: 자고 가면 안 되니?

12) 기본 의미에 해당하는데, 전체 예문 중 2개에 국한되었다.

- 후남: 아니, 가 봐야 해. 가야지. 널 아침밥도 지어야 하구.
 # 부장: 지금 나가서 맥주나 한잔 하지.
 준휘: (시계를 얼핏 보고) 전 가 봐야 되겠는데요.
 (6) 믿음: 주로 ‘-어야 하는 법이지, -아야 하는 게지’와 같은 꼴로 사용되며 다짐이나 확신을 나타낸다.
 # 만수: (기고만장해서) 환상의 큐걸이. 칼 같은 각도. 음, 거의 신 내린 당구라고 봐야 해.
 정태: (피식 웃고) 무슨 신이 내렸는지가 중요하겠지.
 # 성자모: 저는 커피 마실라는데요. 쌍화차는 꼭 약 같아서 싫더라.
 후남부: 좋아요. 좋아 버렸어. 사람은 이렇게 주의주장이 확실해야 하는 법이지.
 # 상호: 그래 그래야지. 세상 여자들 생각이 다 우리 처제 같아야 하는 거라구.
 종숙: 후남아, 그래도 그렇지 이왕이면 갖춰진 남자하고 짝이 돼 봐.
 (7) 비난, 불만, 못마땅함(추가): 강한 어조를 띠며 불만이나 억울함, 비난을 나타낸다.
 # 달자: 앞으로 1분 줄 테니까 제대로 설명해. 왜 저 여자가 내 빵을 때렸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안 그러면 오늘이 당신 제삿날이다
 # 성자: 이런 거 살려면 나하고 의논을 했어야 하잖아요. 나요 신경통 약 사고 어머니 봄 슈타 사고 아버지 넥타이 샀어요. 알아요?
 # 강산: 패스만 연습하구 가자. 속공이 자꾸 안 되는 게 패스 때문인 거 같아.
 달식: 그래두 왜 나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나구.
- (8) 고민, 자탄(한탄): 주로 혼잣말의 형태로 나타나며 말끝을 흐린다.
 # 별리: 빵빵한 기획자 하나 꼬셔야 되는데...
 # 내가 뭘 해주긴 해야 되는데...
 # 제발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 영주 (작은 한숨 내리쉬고) 어떻게 해야 하나...
- (9) 의지: ‘-겠-’과 함께 사용되어 미래에 대한 의도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다.
 # 금나라: 과부 땡빚이라도 내서 전화를 놓든지 해야 되겠다.
 # 후남모: 내가 널 당장 서울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 달자: 그냥 있을 게 아니라 꼭 들어봐야 되겠어.
 # 성자모: 일간 성자한테나 한번 다녀와야 되겠어요.

다음으로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의미 기능을 살펴보자.

- (1) 재확인 질문 : 청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때 쓴다.
 - # 종말: 붙었어? 준: 내 복에 무슨. 오늘 일찍 들어가?
 - 종말: 내가 응원을 안 해서 그래 뭐.
 - 준: (픽 웃는다) 정말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하니?
 - # 순영: 그럼 정말 우리 헤어져야 해?
- (2) 동의 혹은 동조 구함 : 청자의 동의 혹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조를 구할 때 쓴다. 주로 '-어야 하나?/하니?', '-어야 하는 거 아냐'의 꼴로 많이 나타난다.
 - # 지민: 왜 이렇게 됐어? 누가 이랬어?
 - 형주: 알면 이러구 있겠냐. (태훈에게) 학교에 알려야 하는 거 아냐? 남 공부 방해하는 치사한 자식이 누군지 밝혀야지
 - # 다인: (똥)해보지도 않고 속단할 순 없는 거잖아.
 - 세찬: (논쟁 피하듯 농치듯) 오케이 거기까지. (말돌리듯) 자, 어떡할래. 어떻게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냐.
 - # 다인: 지윤이가 페스티벌 참석하려고 중수 수업시간에 뛰쳐나갔대.
 - 나영: (감격해서) 너무 멋있다! (하다 놀라 얼른 달식의 눈치를 본다)
 - 달식: (애써 태연하게) 야, 그럼 우리도 응원 가야 하는 거 아냐?
- (3) 비난/불만/못마땅함: 끝을 힘주어 올리는 억양과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못마땅함을 나타낸다.
 - # 김삼순: 그렇게까지 하면서 꼭 여기 있어야 되겠어요?!
 - # 진현: 왜 김삼순을 김희진으로 불러야 되느냐구요.
 - # 별리: ...왜 재가 니 맘에 들어야 되냐?
 - # 종태: 사장이라고 시장 조사 가면서두 누굴 달구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 # 유정진: 그래도 자기가 담당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CT는 꼼꼼하게 확인 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랬다면 미연에 방지를 했을 텐데...
 - # 신세도: 어떻게 남자만 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나? 그게 얼마나 편파적이고 부담스러운 시츄에이션이니? 안 그래 선주씨?
 - # 정희: 박의원 부부와 점심약속 있다고 아침에 말했잖아요.
 - 성태: (담배부터 꺼내 물며) 아직도 그런 자릴 가야 하나?
- (4) 고민, 한탄: 자문의 형태로 나타나며, 화자의 심정적 갈등이나 고민을 나타낸다.
 - # 복수: 아, 꼭 잡아야 되냐, 응?
 - # 순영: (한숨)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 # 원수: 아이, 치료비 줘야 되냐?
- # 손영심: 이대루 두면 우리 태봉이 영영 그 년 손에 못 벗어날지도 몰라요.
- 강신자: 약연이라고 해야 하나, 인연이라고 해야 하나...

다음에는 명령의 기능을 보이는 예문들을 살펴보자.

- (1) 명령: 상황이나 반대급부에 의해 청자에게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 # 부장: 중수씨, 널 모레까지 내야 되겠는데.
 - # 준휘: 그동안 형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랬던 거...
 - # 안내원: (핸드폰을 가리키며) 저기 핸드폰 꺼야 돼요.
- (2) 권유, 충고 : '-는 거야' 혹은 '-는 거 아냐'의 형태와 더불어 쓰이며, 당위성을 강조함으로 해서 청자에게 권유나 조언의 기능을 가진다.
 - # 답임: 폐병 걸린 거 같다구 그러던데 정말로 하는 애긴지 둘러대는 건지... 후시라도 폐결핵이면 빨리 치료를 해야 해요.
 - # 후남: 맞아. 억지로 구겨넣어 공식에 맞출 필은 없는 거지 뭐.
 - 미현: 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니? 아버지 어머니 다 오셨는데
 - # 의사: 알고 있죠? 이 병은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고 과로를 피해야 하는 겁니다.
 - 후남: 반도 넘게 남은 도시락을 덮고 물을 따라 마신다.

이상으로 구어 말뭉치에서 나온 의미 기능을 문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발화 의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굵은 글씨는 비교적 높은 빈도로 출현한 것이다.¹³⁾

- 서술문: 당위(필연), **후회**(아쉬움, 안타까움), **걱정**(불안), 부탁, 거절, 믿음, **비난**, 고민(한탄), 의지
- 의문문: 재확인, **동의 또는 동조** 구함, **비난**(불만, 못마땅함), 고민(한탄)
- 명령문: **명령**, 권유나 **충고**

물론 구어 말뭉치의 자료를 통한 귀납적 분석의 결과는 구어 상의 모든 대

13) 연령별, 남녀별 변별성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본고는 수치적 제시보다는 화행 기능을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의미 빈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코퍼스에서 드러난 의미 기능만을 기술하였다고 하겠다. 특히 대부분의 예문이 젊은 사람(20대-30대)의 대화에서만 나타났으므로 화청자의 변인별 문형을 변별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민이나 한탄, 충고나 명령의 경우, 40대 이상의 화자들이 다수 출현하였다.¹⁴⁾ 또한 의미 기능 역시, 문자적 의미인 ‘당위, 의무’의 의미 기능을 유지한 채 나머지 화자의 발화 의도가 중첩되어 표현되는 기능이며, 때로는 앞뒤에 결합되는 다른 문법 형태와 더불어 해당 의미 기능을 더욱 두드러지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어야 하다/되다’가 가진 문자적 의미인 ‘당위, 의무’라는 의미만으로는 실제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들을 알기 어려움을 확인하고, 나아가 문어와는 달리 실제 대화에서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전략들이 ‘-어야 하다/되다’의 문형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고는 ‘-어야 하다/되다’의 코퍼스 분석을 통해, 해당 표현의 의미적, 형태·통사적,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구어코퍼스를 통해 화용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한 문형은 실제 대화에서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거나 완곡하게 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과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문장 단위 이하의 개별 문형 중심의 교수 방식이나 기본 의미에만 기댄 인위적 대화 상황에서의 문형의 의미 기능 교수로는 효율적인 문법 교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언어수행 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해당 문형의 변이 문형과 관련 문형을 구분함으로써, 다른 문법 형태와 결합형을 이루어 다른 의미 기능을 나타

내는 문형 목록의 범주화를 가능케 했으며, 이는 이들의 변별적 교수의 근거가 될 것이다. 셋째는 코퍼스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 표현문형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습자의 언어권별 대조 화행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자 했다. 그간의 대조화행 연구는 대조를 하기 위해 개별 화행 자체를 연구해야 하는 순환론에 빠졌는데, 이러한 개별 문형의 분석은 향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대조화행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사전 연구가 된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진다. 첫째, 비록 대화 단위로 청자의 반응과 화자의 수정 여부에 따라 해당 문형의 의미 기능을 판정했다고 하더라도, 문맥별 의미 관별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느냐의 문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일반화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둘째, 본고에서 사용한 구어 코퍼스의 다양성이 충분한가 하는 점과 코퍼스 연구는 귀납적 자료 분석인데 이를 통해 해당 문형의 모든 의미 기능을 추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코퍼스 분석에 의한 1차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 모국어 화자의 화행적 직관을 추출하는 추가적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준구어 자료는 비록 행동에 대한 지문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다. 발화자의 억양이나 쉼, 주저, 반복과 같은 다양한 특성에 대한 연구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화행 기능은 국어의 보조동사 결합형 외에도 종결어미형, 양태용언 결합형, 의존명사 결합형 등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법 교수가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문형들의 화행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현문형과 의사소통 기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만큼 이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교수가 학습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형태와 의미 차원의 문형 교수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의사소통 기능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며 계속되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14) 이 부분은 분석의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 강현화(2007ㄱ), “한국어 교재의 문형 유형 분석”, 『한국어교육』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3쪽.
- 강현화(2007ㄴ), “한국어 표현문형 담화 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지시적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1-26쪽.
- 김서형(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희망 표현 연구”, 『한국어교육』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48쪽.
- 김재욱(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한국어 교육 문법의 제시 원리와 체계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163-180쪽.
- 박영순(2001), 『한국어 문장의미론』, 박이정.
- 안주호(2005), “-어야 하-류 구성의 문법적 특성과 의미”, 『국어교육』 118, 한국어교육학회, 363-394쪽.
- 이선웅(1995), 『국어 보조동사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중은(1998), “의사소통과 인지 중심의 한국어 문법 교수”, 『한국어교육』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3-160쪽.
- 이필영(2004), “서울부 양태 표현들의 범주화와 결합 양상”, 『담화와인지』11-3, 담화인지언어학회, 131-152쪽
- 이효정(2003), 『한국어교육을 위한 양태표현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 임칠성(1996), “-어야의 화용론적 전제 연구”, 『국어국문학』 116, 국어국문학회, 61-80쪽
- 최현배(1937/1983), 『우리말본』, 정음사, 143-211쪽.
- 한송화(2003), “기능과 문법 요소의 연결을 통한 한국어 교육 -명령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9-314쪽.
- 한송화(2006),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한국어 교육』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57-380쪽.
- Geoff Thompson(1996),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1-37쪽,
- Graham Lock(1996), *Functional English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1쪽,
- Collins Cobuild(1990), *Collins Cobuild English grammar : helping learners with real English*, Harper Collins Publishers.
- R, Carr(1980) “A Speech Act Dilemma” Analysis, Vol, 40, No, 3,p, 163-168, JSTOR Archive
- Kent Bach(1981) “Escaping the Speech Act Dilemma” Analysis, Vol, 41, No, 3,, p, 146-149, JSTOR Archive

[사진류]

- 이병규 외(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 백봉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커뮤니케이션 북스.
- 서상규 외(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0-746
전화번호: 02-2123-5270
전자우편: khang@yonsei.ac.kr

원고 접수일 : 2008년 6월 28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8월 13일